

[☞AE-01] The Third Korea Giant Magellan Telescope Summer School – New Challenge and Future

Joon Hyeop Lee, Narae Hwang, Youn Ju Lim, Byeong-Gon Park, Jae-Joon Lee,
Hwa Kyoung Jung, Yee Jin Kim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다가오는 거대마젤란망원경 (GMT) 시대를 이끌어갈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2013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에 걸쳐 강원도 홍천 가람밸리 리조트에서 제3회 거대마젤란망원경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총 47명의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여름학교에서는, GMT 개관, 1세대 관측기기 가운데 최초로 활용될 계획인 GMACS와 G-CLEF의 소개 및 그것들을 활용한 대표적인 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계절학교 참가자들이 'GMACS 또는 G-CLEF를 활용한 관측연구 제안'이라는 주제로 직접 토론과 발표에 참가하는 조별 활동이 주된 프로그램으로 추가된다. 이러한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신진 연구자들이 GMT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가능성을 경험하고 서로 능동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되는 제3회 거대마젤란망원경 계절학교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계절학교의 방향을 점검해본다.

[☞AE-02]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mes for Search for Extrasolar Planets

Kang Hwan Lee, Hyeonbae Lee
Gwachoen National Science Museum(국립과천과학관),

외계행성 탐색은 현재 천문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들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계행성 탐색을 위한 KMTNet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외계행성 발견에 대한 소식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현실이다. 외계행성 탐색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분야라 일선 학교나 일반인 대상 천문시설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외계행성 탐색과 관련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적합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계행성 탐색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더불어 KMTNet과 KGMT와 같은 대형 천문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적절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